

# 종결어미 ‘-다면서’의 문법화와 의미 해석\*

구종남(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 목 차 〉

- |                              |                      |
|------------------------------|----------------------|
| 1. 문제의 제기                    | 3. ‘-다면서’의 종결어미화와 의미 |
| 2. 인용축약형 ‘-다면서’와 종결어미 ‘-다면서’ | 3.1. ‘-다면서1’         |
| 2.1. 인용축약형 ‘-다면서’            | 3.2. ‘-다면서2’         |
| 2.2. 비연결형 ‘-다면서’             | 3.3. ‘-다면서3’         |
|                              | 4. 결론                |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인용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가 문법화를 통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다면서1’(확인), ‘-다면서2’(빈정댐), ‘-다면서3’(환기)으로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들 형식의 의미 기능과 이들 의미가 나타나는 구문상의 여러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빈정댐’의 의미를 갖는 ‘-다면서’ 구문을 후행절이 생략된 인용 접속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 구문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서 ‘빈정댐’의 의미를 갖는 ‘-다면서’는 ‘확인’의 ‘-다면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법화되었으므로 이들의 의미는 별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환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과 연결어미로도 문법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종결어미화된 ‘-다면서’가 어떤 원리로 인용 접속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와는 달리 ‘확인’이나 ‘빈정댐’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원리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종결어미 ‘-다면서’ 구문의 억양,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유형의 ‘-다면서’ 구문은 통

\*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해 쓰였음.

사, 의미적으로 모호한 경계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주제어 : 확인, 빈정댐, 환기, 종결어미화, 문법화, 단편문, 축약형,  
모호성, 수행 억양

##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다면서’가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을 밝히고 종결어미로서의 이 형식의 몇 가지 의미 기능과 이들 의미가 나타나는 ‘-다면서’ 구문의 여러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다면서’는 인용의 접속 구성 ‘-다고 하면서’에 기원을 둔 형태로 접속문 구성에서 축약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종결어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면서’가 종결어미로 쓰인다는 것은 ‘-다고 하면서’에서 ‘-고 하-’가 복원되지 못하고 후행절도 상정될 수 없으며 연결 구성 때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면서’가 특정한 문종결의 수행 억양을 지니며 서법 및 양태적 의미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경어법상 기능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용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는 피인용절과 인용절이라는 서로 다른 절을 이끄는 ‘-다’와 ‘-면서’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복합형식이다. 따라서 이 형식에서 ‘-고 하-’가 복원불가능하게 되어 종결어미화된 ‘-다면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전 발화임을 나타내는 피인용문의 중화된 종결어미 ‘-다’와 인용동사 ‘하-’에 결합된 연결어미 ‘-면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시’나 ‘대립’의 의미를 갖는 ‘-면서’가 어떻게 피인용문을 이끄는 ‘-다’와 결합하여 확인이나 소위 ‘빈정댐’의 의미를 갖는 종결어미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종결어미로서 ‘-다면서’의 성격과 의미 기술 방식에 대해 학계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면서’가 ‘확인’과 소위 ‘빈정담’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으나 ‘빈정담’의 의미를 갖는 ‘-다면서’를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와 구별하여 별개의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김홍범 1987, 이금희 2014,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빈정담’의 의미를 확인의 의미와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이필영 1993, 김수태 1994, 서희정 2013, 표준국어대사전)도 있다.

‘-다면서’의 ‘빈정담’의 의미를 확인의 의미와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견해는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 구문의 억양, 형태, 통사, 화용론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빈정담’의 의미를 확인과 분리시켜 별개의 의미로 기술하는 견해도 종결어미가 ‘-다면서’인 문장과 후행절이 생략되어 단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용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 구문과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빈정담’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면서’를 따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빈정담’의 의미를 갖는 ‘-다면서’ 구문을 후행절이 생략된 인용 접속 구성의 축약형 ‘-다면서’ 구문(단편문)과 비교함으로써 ‘빈정담’의 ‘-다면서’는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인용축약형 연결형 ‘-다면서’와는 범주상 다른 것으로서 문법화를 통해 종결어미화한 것이며, 그 의미 기능은 물론 문법화 과정도 확인의 ‘-다면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들 의미를 별개로 설정하고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문법화된 종결어미가 확인과 ‘빈정담’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도 문법화된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나아가 ‘-다면서’가 종결어미로서 문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면서’가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다는 사실도 밝힐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원적으로는 피인용문을 이끄는 ‘-다면서’와 인용절을 후행절에 연결시키는 ‘-면서’의 융합형이 그 내재적 의미와는 달리 어떻게 확인이나 ‘빈정거림’, ‘환기’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종결어미 ‘-다면서’ 구문에서 보이는 억양, 형태, 통사, 화용적 특징도 검

도하기로 한다.

## 2. 인용축약형 ‘-다면서’와 종결어미 ‘-다면서’

### 2.1. 인용축약형 ‘-다면서’

‘-다면서’는 인용 구성 ‘-다고 하면서’의 축약형이다. 먼저 예문을 보기로 한다.

(1) 가. 정희는 미자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갔다.

나. 민희는 동생이 중국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늘 일식집에 데리고 간다.

위 예들에서 보듯이 ‘-다고 하면서’는 피인용문이 평서문임을 나타내는 중화된 종결어미 ‘-다’와 인용표지 ‘-고’, 그리고 인용동사 ‘하-’에 결합된 ‘-면서’로 구성된 형식이다. 이때 ‘-면서’는 인용동사가 ‘하-’인 인용절을 후행절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가)에서는 ‘-면서’가 동시의 의미를, (나)에서는 대립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고 하면서’는 위에서 보듯이 ‘-다면서’로 축약될 수 있으며 이때도 ‘-다고 하면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도치될 수도 있으며 상황 문맥에 후행절 내용에 해당되는 정보가 주어지면 접속어미를 가진 선행절만 나타나고 후행절은 생략될 수 있다.<sup>1)</sup> 두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축약형 ‘-다면서’가 이끄는 절도 도치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후행절이 생략된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

---

1) 이전의 연구에서 이런 경우 선행절에 결합된 연결어미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보았으나 구종남(2017)에서는 이런 연결 어미절을 후행절이 생략된 단편문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들 연결어미는 종결어미적 용법과 관련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 (2) 가. 정희가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나. 너는 커피를 또 마시는구나. 아까 마셨다(고 하)면서.
- (3) 가. A: 미나는 항상 창문을 닫아.  
 B: 바람 들어온다(고 하)면서?  
 나. A: 정희는 늘 커피를 마셔.  
 B: 커피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 (4)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저 녀석 내일 시험 있다(고 하)면서.

(2)는 ‘-다(고 하)면서’ 절이 선행절과 도치된 경우이고, (3)은 대화 상황에서 선행절 뒤에 후행절이 생략되고 수행 억양이 ‘-다면서’ 뒤에 놓여 ‘-다면서’ 구문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다. 한편 (4)는 상대(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단독적인 상황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것이다.<sup>2)</sup> (3, 4)의 ‘-면서’ 구문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발화가 되지만 그 뒤에는 생략된 후행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 ‘-다면서’는 ‘-다고 하면서’의 축약형으로 연결형식 자체이며 ‘-다면서’ 구문은 일종의 문장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비연결형 ‘-다면서’

이제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 (5) 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정희 결혼한다면서? (상승조)  
 나. (엄마를 보자마자 딸이) 진주 합격했다면서? (상승조)
- (6) 가. (모임에 참석한 친구 철수가 온 것을 확인하고) 철수 재는  
 못 온다면서. (약하강 후 약상승).  
 나. (돈을 빌려간 친구를 보고) 너 어제까지 돈 갚는다면서.  
 (하강조)

---

2) 대화 장면에서는 ‘-다(고 하)면서’가 동시, 대립 모두에서 생략된 절이 복원될 수 있으나 단독적인 장면에서는 ‘-면서’가 대립의 의미를 나타낼 때만 후행절 생략이 가능하고, 동시의 경우에는 ‘-다면서’ 절만 사용되는 용법이 없는 듯하다.

(5)는 문말 억양이 상승조로 쓰일 경우 ‘-다면서’는 이것이 이끄는 문장 내용이 사실인지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런 유형의 ‘-다면서’ 구문에는 상황 문맥에 주어진 인용접속문의 후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다면서’ 구문은 후행절이 전제 되는 앞 예문 (4)와 같은 단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전 논의에서 이런 ‘-다면서’를 종결어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6)은 청자가 이전에 한 말과 실제의 상황이 다를 때 ‘빈정댐’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때도 상황 문맥에 주어진 인용 접속문의 후행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면서’ 절의 후행절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도 ‘-다면서’ 구문이 선행절을 전제로 하는 단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의 ‘-다면서’를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와는 무관하게 종결어미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자들 간의 견해차를 보인다.

이제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7) (해열제를 주면서) 너 머리 아프다면서. (약하강)

위의 ‘-다면서’ 구문 뒤에 가벼운 하강조의 문말 억양이 놓일 경우 문맥 상황을 고려하면 생략되었다고 생각되는 후행절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 예문에서 ‘-다면서’는 ‘빈정댐’ 의미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렇다고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다면서’는 화자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전 논의에서 ‘-다면서’의 이런 의미 기능에 관심을 둔 경우는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면서’는 인용 접속 구성에서 축약형으로 쓰여 인용절인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의미 기능에서 인용 구성의 축약형과는 전혀 다른 용법을 갖는다. 이전 논의에서 확인이나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보이는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보았다. 그러나 이전 논의에서는 ‘-다면서’가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 종결어미

로 문법화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종결어미로의 상이한 문법적 의미의 설정 방식과 기술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었다. 또한 종결어미 ‘-다면서’의 ‘환기’와 같은 또 다른 의미 기능과 ‘-다면서’가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 쓰이는 용법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본고에서는 (5)와 같이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는 ‘-다면서’를 ‘-다면서1’, (6)과 같이 ‘빈정담’의 의미 기능을 갖는 ‘-다면서’를 ‘-다면서2’, (7)과 같이 ‘환기’의 의미 기능을 갖는 ‘-다면서’를 ‘-다면서3’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법화된 각 형식의 억양, 형태, 통사, 화용적 특징도 살펴보기로 한다.

### 3. ‘-다면서’의 종결어미화와 의미

#### 3.1. ‘-다면서’

3.1.1. 먼저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갖는 예를 보기로 한다.

(8) 가. 거기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서?

나. 너 그 사람 잘 안다\*(고 하)면서?

위에서 ‘-다면서’ 구문은 화자가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에 대해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믿는 상대(청자)에게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쓰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 논의에서 이때의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본 근거는 이 구문 뒤에 생략된 것으로 이해되는 후행절이 설정될 수 없고, ‘-다면서’에는 ‘-고 하-’가 복원 불가능하며, 그리고 이 구문에 의문을 나타내는 문말의 상승 수행 억양이 없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위에서 ‘-다면서’ 구문은 화자가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에 대해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믿는 상대(청자)에게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쓰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 논의에서 이때의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본 근거는 이 구문 뒤에 생략된 것으로 이해되는 후행절이 설정될 수 없고, ‘-다면서’에는 ‘-고 하-’가 복원 불가능하며, 그리고 이 구문에 의문을 나타내는 문말의 상승 수행 억양이 없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경우 ‘-다면서’에서 ‘-고 하-’가 복원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융합된 형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면서’ 구문 뒤에 생략된 것으로 생각되는 후행절이 설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 구문이 단편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구종남 2018). 그러나 ‘-고 하-’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해도 이 구문 뒤에 후행절이 설정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8) 뒤에 후행절 설정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이 ‘-다면서’ 구문 뒤에는 ‘(그게) 사실이야?’, ‘(그게) 정말이야?’와 같은 표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후행 표현이 상황 문맥에 주어져서 생략 가능한 ‘-다면서’ 절의 후행절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다면서’는 종결어미로서의 지위가 확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면서’가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 쓰인다는 사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sup>

- (9) 가. 미자는 그 남자를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만나니?  
나. 너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안 가니?

위 예문은 인용 접속 구성으로서 ‘-다고 하면서’와 축약형 ‘-다면서’가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화자가 이전 정보를 (가)에서는 피인용문의 발화자인 ‘미자’, (나)에서는 청자에게서 직접 들은 경우다. 만일 (가)의 ‘미자가 그 남자를 안 좋아한다’는 이전의 발화를 미자에게 직접 듣지 않고,

3) 이전 논의에서 ‘-다면서’가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다고 주장한 경우는 없었다.

(나)의 ‘나는 아프다’는 이전 발화를 청자에게서 직접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고 하면서’가 쓰이지 못하고 ‘-다면서’만 쓰일 수 있다. ‘-다고 하면서’는 피인용문의 인지 경로상 원발화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면서’는 이런 사실이 전제될 때 사용될 뿐 아니라, 인지 과정이 간접적일 때도 사용된다. 여기서 인용접속문에서 ‘-다고 하면서’가 제약되고 ‘-다면서’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연결어미화된 축약형 ‘-다면서’의 존재 가능성이 인정된다.

3.1.2. 앞서 접속문의 선행절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단편문으로 쓰이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사실과 ‘-다면서’가 연결어미로 굳어진 형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확인문을 보기로 한다.

- (10) 가. 거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 (그거) 사실이야/정말이야?  
 나. 너 그 사람 잘 안다\*(고 하)면서.( ) (그거) 사실이야/정말이야?

(10가, 나)는 ‘-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문장이 이어진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다면서’의 접속어미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위 예문에서 ‘-다면서’ 구문 뒤에 이어진 표현은 접속문의 후행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후행 표현이 ‘-다면서’ 절 뒤에 휴지 없이 이어질 수 있고, ‘-다면서’ 절에 얹히는 문말 상승 억양이 후행 표현 뒤에 얹힐 수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만일 (10가, 나)가 접속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예문 (8)은 후행절로 이어질 수 있는 (10가, 나)의 후행 표현 ‘그것 사실이야/정말이야?’ 같은 것이 생략된 단편문이며 ‘-다면서’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위 예문의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보아 온 기존의 견해와 상충된다.

(8)을 단편문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단편문의 경우 생략된 후행절은 선행절에 주어진 정보라고 했는바, 위 예문 (8)에서 ‘-다면서’ 구성을 단편문으로 볼 수 있으려면 후행절 ‘(그거) 사실이야?/(그거) 정말이야?’가

문맥 상황에 드러난 정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묻은 표현이 후행하는 (10)의 ‘-다면서’ 구성은 단편문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10)은 ‘(그것) 사실이냐/정말이냐?’가 후행절이 되는 접속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예문 (10)이 접속문이며 후행절 ‘(그거) 사실이냐?/정말이냐?’가 문맥 상황에 드러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면서’ 구성이 단편문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연결어미절이 모두 단편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어미가 단편문에 쓰이기 위해서는 구어적 용법을 지녀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중남 2018) 연결어미 ‘-다면서’의 이런 상황 문맥적인 정보로 인한 제약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은 ‘(그거) 사실이냐/정말이냐?’가 후행절이 되는 접속문이 될 수 있으며<sup>4)</sup> 이런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는 (8)과 같은 ‘-다면서’ 구성은 ‘-다면서’가 종결어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3.1.3. 이제 ‘-다면서1’이 위의 경우에 어떻게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다면서’ 절이 확인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질문의 수행 억양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11) A1: 너 왜 결석했어?  
 B: 몸이 아파서.(.) (결석했어.)  
 A2: 몸이 아파서?(?) (결석했어?)  
 (12) A1: 충전기 어디 있지?  
 B: 책상 위에.(.) (충전기가 있어)  
 A2: 책상 위에?(?) (충전기가 있어?)

위에서 A2는 모두 단편문으로 쓰였는바, 이들은 모두 청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질문의 상승 억양을 통해 청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4) (10)도 ‘-다면서’에 상승의 수행 억양이 놓이거나 후행 표현과의 사이에 약간 긴 휴지가 놓이면 별개의 문장으로 해석된다.

갖는다.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면서’의 경우는 화자가 과거에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시공간을 옮겨와서 확인하는 경우이므로 발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들은 정보를 되묻는 위의 경우와는 확인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11, 12)의 확인의 경우는 정보가 발화 상황에서 제시되며, 확인하려는 정보는 전체 문장의 일부인 문장 성분이다. 그러나 ‘-다면서’가 확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정보가 발화 상황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취득한 정보이며 확인하려는 정보 단위도 문장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면서’의 경우는 위의 정보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다면서’ 접속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우리는 ‘-다면서’가 접속어미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접속문은 ‘-다면서’ 종결어미문과 의미 기능상 대응됨을 보았다.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면서’가 접속어미로 쓰이는 경우를 확인했으므로 이제 그 예를 다시 보기로 한다.

(14) 거기 비가 많이 온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위 문장은 이전에 들었던 정보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 정보의 사실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여기서 후행절 주어 ‘그것’은 ‘-다면서’에 이끌리는 피인용절 내용과 같다. 따라서 후행절 주어는 잉여적이다. 질문의 수행 억양을 통해 단편문이 확인의 기능을 갖는 (11,12)의 경우를 고려하면 (14)에서 사태의 진위 여부를 묻은 ‘(그거) 사실이야?’는 질문의 수행 억양이 ‘-다면서’에 놓임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삭제될 수 있다. 요컨대 (14)는 후행절이 삭제되고 문말 억양이 ‘-다면서’에 놓여도 후행절이 삭제되기 전의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을 이렇게 후행절 삭제 원리로 설명하면 우리는 ‘-다면서’가 어떻게 확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sup>5)</sup>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 구문의 기저구조를 접속문으로 설정하면 이전 발화임을 나타내는 피인용문의 평서형 종결어미 ‘-다’와 내재적 의미상 후행절을 무색투명한 관계의 선행절과 동시 상황으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면서’가<sup>6)</sup> 어떻게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sup>7)8)</sup>

3.1.4. ‘-다면서’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면서’가 확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원발화가 ‘-면서’에 결합될 때 ‘-다/나/라/자’는 원발화의 문장형을 의미하는바, ‘-나면서’는 원발화가 질문의 형식임을 의미하므로 이를 시간공간적으로 옮겨와 확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편 ‘-라/자면서’의 확인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 
- 5) 본고에서는 종결어미 ‘-다면서’가 ‘-다면서’ 접속문에서 문법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다면서’의 후행 표현 ‘(그거) 사실이야?’가 그것이 접속문의 후행절이든 별개의 문장이든 ‘-다면서’의 문법화 과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후속 표현이 후행절이라면 ‘-다면서’의 문법화 과정이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후속 표현이 별개의 문장이라면 문법화가 담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 6) 상황을 무색투명한 관계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면서’가 동시나 대립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문맥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구종남 1989)
  - 7) 역시 이전 발화임을 나타내는 ‘-다는데’의 경우 ‘동수가 미국에 있다는데 사실이야?’를 변형시킨 구문 ‘동수가 미국 있다는데?’가 내용 확인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8) 비축약형 ‘-다고 하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고 하-’는 화자가 정보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직접 들었던 정보를 그 발화의 당사자가 아닌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화용론적으로 기이하다는 사실로써 이해될 수 있다.

(15) 가. \*진주 가라면서? (상승)

나. \*정희랑 골프 치자면서? (상승)

위에서 보듯이 명령, 청유의 ‘-라/자면서’는 ‘확인’ 구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라/자면서’가 항상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16) 가. 나는 텐트 가져오라면서?

나. 우리 회식 한 번 하자면서?

위 예에서 보듯이 원발화의 명령의 대상이 ‘-다면서’ 구문의 화자이거나 청유의 상대가 ‘-다면서’ 구문의 화자가 포함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라면서’, ‘-자면서’ 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이들도 종결어미로 굳어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 3.2. ‘-다면서?’

이제 종결어미 형태로서 확인의 의미와 구별하여 별개의 독립된 의미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자들 간에 이견을 보이는 ‘-다면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빈정댐’의 의미를 보이는 ‘-다면서’가 종결어미로 등재된 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상대가 과거에 한 이야기가 잘못된 것임을 빈정대듯 나타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면서’가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사태에 대한 이전에 청자의 말이 있었다는 것, 둘째, 청자의 발화 내용이 잘

9) 이 경우 원발화를 생각하면 (16가, 나)는 ‘나는 텐트를 가져오라고 했다면서/가져오랬다면서?’, ‘우리 회식하자고 했다면서/회식하겠다면서?’로 해석되어 결국 확인의 ‘-다면서’ 형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발화 사실 여부를 묻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원발화에서 명령, 청유의 대상이 확인문의 발화자에 관련될 때는 인용의 이중 구조가 아닌 ‘-라면서’, ‘-자면서’ 형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못되었다는 것, 셋째, 이에 대해서 화자가 빈정대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sup>10)</sup> ‘-다면서’가 확인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 기능을 갖는지, 그렇다면 그 의미 기능은 어디서 기원되며 종결어미로서의 범주적 성격은 어떠한지를 구명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다면서’는 청자의 말을 인용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제3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바, 제3자가 한 말이 실제와 다를 때는 ‘빈정거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가? 만일 그런 기능을 가진다면 종결어미로서의 자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 청자의 이전 말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항상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 나타나는 ‘-다면서’는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빈정댐’의 ‘-다면서’가 쓰이는 상황을 청자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과 전제되는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sup>11)</sup>

### 3.2.1. 청자 비전제 상황

청자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청자의 말이 아닌 제3자의 말이 사실과 다를 때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다면서’가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인용절과 후행절이 대립을 이루는 경우가므로 여기서 이 경우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17) 가. 재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집에 있네.

나. (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재는 도서관에 간(다 고)면서.

(약상승) (집에 있네.)

다. (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재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왜 집에 있는 거야/어찌된 일이야?

라. (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재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10) ‘-다면서’가 ‘빈정댐’의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본고에서는 ‘-다면서’의 의미를 다른 ‘-다면서’와 구별하기 위해 이의 대표적인 의미를 ‘빈정댐’이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다면서’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11) 청자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는 단독적인 장면으로, 청자가 전제되는 상황은 상관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약하강 후 약상승)

마. (집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재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서.

(급하강).

위 예문에서 (가)는 인용의 접속 구성인바,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나)는 후행절에 올 수 있는 내용이 문맥 상황에 주어져 있어서 ‘-다면서’ 절의 후행절이 생략된 경우다. 우리는 앞서 이를 연결어미절이 단편문으로 쓰이는 경우라고 보았다. (다)는 화자의 이전 정보와 실체가 다른 상황에서 ‘-다면서’ 뒤에 화자의 정보 내용과 실체가 왜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후행절이 이어지는 접속문이다.<sup>12)</sup> ‘-다면서’ 뒤에 급하강의 문말 억양이 놓이는 (마)는 적격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한편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라)는 문말 억양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 의아함이나 약한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면서’가 약한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도 종결어미로 해석할 수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면서’가 ‘-다고 하면서’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경우 ‘-다면서’ 구문이 어느 정도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발화 뒤에는 ‘집에 있네’와 같은 후행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라)는 후행절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는 비록 인용절과 생략된 절이 대립 관계를 이루지만 화자의 태도에서 중립적인 경우이고 후자는 화자의 태도가 비중립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중요한 사실은 (라)도 연결어미로 끝나는 단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제3자가 전에 한 말

12) 이 경우 후행절은 문맥 상황에 주어진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면서’에 이끌리는 표현은 후행절이 생략되어 단편문이 될 수 없음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13) 만일 ‘-다면서’에 이끌리는 발화를 문장의 주어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다면서’ 형만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 ‘-다고 하면서’ 인용 구문에서의 정보 취득의 직접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면서’가 연결어미로 쓰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실제와 다를 때는 비록 (17라)와 같이 ‘-다면서’ 형으로 끝나는 구문이 ‘빈정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도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면서’가 ‘-다고 하면서’로 환원 가능하며 문맥 상황에 주어진 정보를 후행절로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3.2.2. 청자 전제 상황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청자의 이전 말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항상 ‘빈정거림’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경우 ‘-다면서’는 종결어미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18) 가. 너는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밥을) 먹는구나.  
 나. (상대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너는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약상승) (먹네?)  
 다. (상대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너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왜먹어?/어찌된 일이야?  
 라. (상대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너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약하강 후 약상승)  
 마. (상대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너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급하강)
- (19) 가. (청자의 면전에서) 정희 서울 갔다(고 하)면서 (정희) 저기 있네.  
 나. (정희가 모임에 온 것을 보고 청자를 향해) 정희 서울 갔다(고 하)면서. (약상승) (저기 있네.)  
 다. (정희가 모임에 온 것을 보고 청자를 향해) 정희 서울 갔다  
 (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왜 거짓말 했어?  
 라. (정희가 모임에 온 것을 보고 청자를 향해) 정희 서울 갔다  
 \*(고 하)면서. (약하강 후 약상승)  
 마. (정희가 모임에 온 것을 보고 청자를 향해) 정희 서울 갔다  
 \*(고 하)면서. (급하강)

위 예문은 청자를 향한 발화로서 (18)은 ‘-다’에 의해 이끌리는 발화가 청자 자신에 관한 것이며 (19)는 제3자에 관한 것이다. (18, 19) 모두에서 (가)는 인용 접속 구성으로 쓰이며 (나)는 문맥 상황에 주어진 후행절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화자의 태도는 중립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단편문이 된다. (다)는 ‘-다면서’ 절 뒤에 의아함이나 ‘빈정댐’의 뜻을 가진 질문의 형식이 후행절로 온 접속문이다. 한편 (18, 19)의 (라)는 ‘-다면서’ 뒤에 잠깐 하강하다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수행 억양이 놓이는데, 상대의 이전 발화와 실제가 다른 것에 대하여 빈정대고 따지는 태도를 드러낸다. (마)는 갑작스런 하강 억양으로 끝나는 경우인바, 이 경우에도 의아함과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 마)는 청자의 이전 말에 대해 모두 ‘빈정댐’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라)는 억양으로 입증되듯이 이전 말과 드러난 사태가 다름을 대비시켜 강조함으로써 따져 묻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마)는 당혹감이나 의아함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라, 마)와 같이 ‘-다면서’ 구문이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경우 ‘-다면서’ 뒤에는 상황 문맥에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후행절이 생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후행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나)와 (라, 마)가 같지만 이들은 차이가 있다. (나)의 경우는 비록 후행절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문맥에 주어진 정보(상대가 밥을 먹는 사실/정회가 모임에 온 사실)가 생략되었으나 생략된 정보를 화자가 새롭게 인지하는 정보 내용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다. 반면 (라, 마)의 경우는 후행절로 설정될 수 있는 상황 문맥의 정보를 암묵적으로라도 드러내는 것에 화자의 의도가 있지 않고, 이미 청자의 기존 발화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인정한 뒤 이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라, 마)는 후행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후자의 경우는 화자의 발화 의도가 전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라, 마) 뒤에 후행절이 이어질 수 없다고 볼 때 우리는 이 경우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나)와 (라, 마) 간의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에 대한 위의 설

명파 (라, 마)의 ‘-다면서’는 종결어미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는 (18,19)의 (라, 마)에서는 ‘-고 하-’가 복원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전 논의에서 ‘빈정댐’의 의미를 갖는 종결어미 ‘-다면서’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경우의 ‘-다면서’ 의미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자에 관한 발화든 제3자에 관한 발화든 청자의 이전 말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 (18,19)의 (나)와 같이 ‘-다고 하면서’가 쓰이거나 ‘-고 하-’가 복원가능한 ‘-다면서’가 쓰이는 구문은 ‘빈정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18,19)의 (나)는 후행절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문이 되며 이 때 ‘-다(고 하)면서’는 연결형으로서 이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한편 ‘-다면서’ 뒤에 ‘약하강 후 약상승’의 수행 억양이 놓이는 (라)와 급하강의 수행억양이 놓이는 (마)는 ‘-다면서’ 형만 가능하며 이들 구문은 ‘빈정댐’, ‘짜짐’, ‘의아함’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문맥 상황에 드러난 후행절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다면서’는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빈정댐’의 의미는 ‘-다면서’에서뿐 아니라 ‘-냐/라/자면서’ 형에서도 나타난다.

(20) 가. (토마토 샐러드를 사람들이 잘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저걸 먹겠냐면서?

나. (다음 날 일찍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내일은 쉬라면서.

다. (작별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 친구에게) 저녁 같이 먹자면서?

‘-다면서’는 그 기본 의미가 청자의 이전 발화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에 쓰이는바, 청자의 이전 발화는 질문, 명령, 청유일 수도 있다. 그런 발화와 실

14) 이 경우 이금희(2014)에서는 ‘-다면서’의 의미가 ‘내용 확인’의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때는 ‘-다면서’ 구문이 이에 결합된 내용이 사실 여부를 몰라서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 확인보다는 ‘환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후술 참고).

제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는 청자의 발화와 실제가 다른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후행절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고 하-’의 복원불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빈정댐’의 ‘-다면서’가 종결어미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실 ‘-다면서’는 ‘빈정댐’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그 의미가 상황 문맥과 화자의 의도, 심리상태, 억양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면서’는 ‘빈정댐’, ‘따짐’, ‘당혹감’, ‘불쾌감’ 등의 부정적 의미뿐 아니라, ‘의아함’, ‘놀라움’, ‘반가움’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sup>15)</sup>

### 3.3. ‘-다면서’

3.3.1. 이제 어미 ‘-다면서’가 확인이나 ‘빈정댐’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21) 가. (아이패드를 주면서) 너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서. (가져.)  
나. (돈이 든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네주며) 우리 동수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서? (이거 동수한테 줘라.)

(21)에서 ‘-다면서’는 확인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21)은 화자가 ‘-다면서’에 선행하는 정보를 이전에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장이 아닌 것이다. 이는 ‘-다면서’ 구문 뒤에 ‘(그거) 사실이

---

15) 사실 화자가 이전에 들은 원발화에 대해 어떤 심리적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면서’ 절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에서 화자가 서울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미자가 서울에 가지 않은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다면서’ 구문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나 감정은 ‘빈정댐’이나 따짐보다는 의아함, 놀라움, 반가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자가 서울에 가는 것이 화자의 바람이었다면 서울에 가지 않는 상황을 접했을 때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는 당혹감, 의아함, 불쾌감, 따짐, 불쾌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야?/(그거) 맞아?)와 같은 표현이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로써 분명해진다. (21)은 화자가 이전에 들었던 말이 실제와 다른 상황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위에서 ‘-다면서’는 이에 이끌리는 정보를 듣고 화자가 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한 뒤 그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과거에 들었던 정보를 환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1)에서 ‘-다면서’ 구문 뒤에는 후행절이 불가능하며 ‘-다면서’ 형만 가능하고 ‘-다고 하면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경우 ‘-다면서’는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다면서’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주목한 적이 없었다. ‘-다면서’의 환기적 의미는 다음 경우에도 확인된다.

(22)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오늘 밥값은 진주가 낸다\*(고 하)면서.

위 예는 ‘진주’를 포함한 일행이 식사를 마친 뒤 ‘진주’에게 식사비를 내라는 의도로 발화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런 경우라면 ‘-다면서’ 절 뒤에 상황 문맥에서 주어진 후행절 정보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장 뒤에 ‘진주야, 식사비 네가 계산해.’와 같은 문장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22)의 후행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다면서’에서는 ‘-고 하-’가 복원될 수 없다. 이때 ‘-다면서’는 ‘환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종결어미 ‘-다면서’는 확인이나, ‘빈정댐’의 의미 기능 외에 ‘환기’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런 ‘-다면서’가 환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때는 이전에 들었던 문장형이 무엇이었던 상관도 없다.

(23) 가. (사람들이 옥수수빵을 잘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저걸 먹느냐

\*[고 하]면서.

나. (짐을 싸 들고 나가면서) 나 가라\*[고 하]면서.

다. (식당 밖에 차를 세우면서) 밥 먹고 가자\*[고 하]면서.

위에서 보듯이 ‘-다면서3’이 이전 발화의 환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는 ‘-냐/라/자면서’ 형도 가능하다. 이전 발화가 질문이든 명령이든, 청유든 그 이전 발화는 적절한 문맥 상황에서 환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나/라/자면서’ 모두 환기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음이 이해된다.<sup>16)</sup>

3.3.2. 앞서 ‘-다면서2’의 상황 문맥, 화자의 태도 및 의도, 그리고 억양에 따른 통사적, 의미적 모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바, ‘-다면서’의 모호성은 이것이 접속어미로 사용될 때도 존재한다.

- (24) 너 합격했다\*(고 하)면서 {가. (너) 출근은 언제부터 하니?  
 나. (너) 한턱 내야지. 다. \*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라. \*너 대단하다. 마. ?친구들이 모르고 있더라?  
 바. ?운이 좋았던 모양이다?}

(24)의 선행절 ‘-다면서’ 뒤에 후행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절은 (가, 나)이다. 그러나 (다, 라)는 접속문의 후행절로 해석될 수 없으며 별도의 문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마, 바)는 후행절로 보아야 할지, 이와 무관한 별개의 문장으로 보아야 할지 모호한 경우다. (다, 라)처럼 후행 표현이 별개의 문장으로 해석될 때 ‘-다면서’ 구문은 단문이며 ‘-다면서’는 종결어미로 해석된다. 이때 ‘-다면서’는 앞서 살펴본 환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가, 나)처럼 후행 표현이 후행절로 해석되어 ‘-다면서’가 연결어미로 기능할 경우에도 ‘-다면서’는 환기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16) (23)은 문맥에 따라 ‘빈정댁’, ‘따짐’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다. 예컨대 (23나, 다)의 경우는 화자가 괄호 안에 나타낸 행동을 할 때 그의 행위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쓰일 수 있는바, 이 경우는 ‘환기’의 의미 기능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장 형이 의문인 (가)의 경우는 청자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빈정댁’의 의미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도 ‘빈정댁’의 의미는 부수적이고 이전 발화에 대한 ‘환기’가 부각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가 ‘따짐’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마, 바)처럼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에도 ‘-다면서’는 환기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4)의 (가~바) 모든 경우에 ‘-다면서’는 환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위의 경우 ‘-다면서’가 연결어미로도 해석되고 종결어미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결어미인지 종결어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이런 사실은 ‘-다면서’가 의미 기능과 상관없이 통사적 기능과 문법 범주적 성격이 모호한 경계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17)</sup>

#### 4. 결론

본고에서는 인용 접속 구성 ‘-다고 하면서’의 축약형 ‘-다면서’가 종결어미화되어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밝히고 이들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구문의 형태, 통사,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종결어미 ‘-다면서’에 대한 이전 논의는 이 어미가 나타내는 확인이나 ‘빈정담’의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별개로 보느냐 통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다면서’가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다면서’ 구문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밝히는 데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또한 이전 논의에서는 종결어미 ‘-다면서’가 기존에 밝혀진 의미 기능 외에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과, ‘-다면서’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 어떻게 그 내재적 의미와 거리가 있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을 소위 종결어미 단편문과의 비교를 통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는 ‘-다고 하면서’로 환원될 수 없고 문맥 상황에 주어진 적절한 후행절이 설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견해처럼 종결어미임이 확인되었다. ‘-다면서’가

---

17)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면서’의 의미도 문맥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그 의미 기능의 경계도 모호한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 형식을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청자 전체의 경우와 청자가 전체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다면서’가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청자가 전체되는 상황에서 상황 문맥에 주어진 정보가 ‘-다면서’ 구문의 후행절로 환원이 불가능하고 후행절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이 때의 ‘-다면서’를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빈정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면서’는 그 쓰이는 상황과 의미 기능이 확인의 ‘-다면서’와 다르므로 이 둘을 별개의 의미로 기술해야 한다고 보고, ‘확인’의 ‘-다면서’는 ‘-다면서1’로, ‘빈정담’의 경우는 ‘-다면서2’로 구별했다. 한편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확인’이니 ‘빈정담’의 의미 외에 단순히 ‘환기’의 의미 기능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경우 ‘-다면서’를 ‘-다면서3’으로 분석했다.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빈정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때는 청자의 이전 발화가 질문이든 명령이든 청유든 상관 없이 이는 ‘따짐’, ‘불쾌감’, ‘당혹감’ 등의 부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의아함’, ‘놀라움’, ‘반가움’ 등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의미 기능도 갖는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다면서’의 종결어미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는 문법화되어 연결어미적 기능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때 ‘-다면서’ 절은 연결어미 단편문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다면서’가 확인의 의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다면서’ 절 뒤에 오는 후행 성분 삭제 과정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청자에게서 들었던 말과 실제가 다를 때 기대 부정이 나타나거나, ‘-다면서2’의 ‘빈정담’의 의미는 이전에 들었던 말을 그 말과 반대 상황으로 관련시키는 ‘-면서’의 내재적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다면서’의 ‘환기’의 의미는 이전에 들었던 정보를 확인의 의도나 부정적인 태도의 표출 없이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 상황과 관련지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종결어미 ‘-다면서’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은 상황 문맥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종결어미화된 ‘-다면서’의 의미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억양, 형태, 통사, 화용적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참 고 문 헌

- 구종남(1989), 「대립 관계의 '-면서 구문에 대하여」, 『국어문학』 27집, 국어문학회, 317-341면.
- 구종남(2018), 「국어의 연결어미 독립절(단편문)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82집, 한민족어문학회, 91-120면.
- 구종남(2017), 「인용접속문의 축약 현상 연구」, 『국어문학』 66집, 국어문학회, 125-156면.
- 구종남(2019),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문법화」, 『한민족어문학』 85집, 한민족어문학회, 81-115면.
- 김수태(1994), 「우리말 인용표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1집, 국어문학회, 239-271면.
- 김주식 역(2006), 『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말』 12집, 연세대학교어학당, 71-91면.
- 김희경(2011), 「간접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어학』 52집, 한국어학회, 51-82면.
- 남기심(1973), 『국어 원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서희정(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용 종결어미의 인용 정보와 의미 기능 -인용구문 및 후행 어미와의 상관성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집, 국어문학회, 245-271면.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집, 국어학회, 238-258면.
- 이금희(2014),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연구』 4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6면.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Bybee, Joan L., Reber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Heine, Bernd(1994), *Grammaticalization as an Explanatory Parameter*, In William Pagliuca(ed), pp.255-287.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The Grammaticalization and the Meaning of ‘-Damyeonseo’

Koo, Jong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processes in which the abbreviated citation connective form ‘-damyeonseo’(–다면서) changes into sentence final ending which means confirmation, sarcasm, through grammaticalization, and clarify some of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se forms and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entences in which these meanings appear.

Depending on the fact that ‘-damyeonseo1’(confirmation), ‘-damyeonseo2’(sarcasm) grammaticalized differently, this paper argued that their meanings must be discriminated and their meanings should be described separately.

In addition, this paper argued that ‘-damyeonseo’ grammaticalized as a sentence final ending representing the meaning of awakening, and ‘-damyeonseo’ also grammaticalized as a connective ending.

I argued that in what principles sentence final ending ‘-damyeonseo1,2,3’ have the different meanings. Furthermore, the terminal contour, syntactic, semantic,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final ending ‘-damyeonseo’ were examined in this paper.

**Keyword** : confirmation, sarcasm, terminal contour, sentence final ending, connective ending, confirmation, fuzziness, sentence fragment, grammaticalization, awakening.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